

멕시코石油의 환상과 고뇌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멕시코에 있어서 오아시스와도 같았던 石油가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禍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계 3大 産油國으로 부상한 멕시코는 동시에 開途國중 제2위의 債務國이라는 불명예를 함께 지고 있다. 이 나라 총수출액에서 石油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며, 이는 國家財政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만큼 石油은 멕시코의 자부심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나친 石油의존으로 말미암아, 지난 3년간 계속된 油價下落에서 받은 충격은 더욱 크다. 안정을 모토로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해 온 멕시코 정부는 石油의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직면하여 케도수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보다는 혼란에 빠진 세계石油시장에서 여하히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石油産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미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있는 상태이다.

石油의 혜택에 대한 의문

멕시코가 石油을 생산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요즈음 세계최대의 산유국중의 하나로 화려하게 등장한 裏面에 많은 멕시코인들은 石油로 인한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또한 대부분 석유개발과 관련하여 빌어 왔다고 생각되는 外債 960억달러의 상환을 위해 石油를 계속 퍼올려야 하는가에 회의를 갖고 있다. 즉 그들은 石油輸出이 증가한다 해도 그로 인한 收入은

모두 채권국에로 돌아갈 것이며, 自國의 석유만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미겔 데라 마드리드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개선시키려 부심하고 있다. 독립계 석유회사의 고문으로 있는 구스타프 로드리게스씨에 의하면, 지금까지 멕시코 정부의 기본정책은 石油를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나타난 결과는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지금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석유정책은 외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石油에 의한 富의 분배가 공평치 못하였다기보다 外債가 공평치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멕시코의 石油産業을 연구하는 美國을 비롯한 西歐채권단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38년 멕시코의 대통령 라자로 카르테나스가 대국적 석유회사의 해외지분을 몰수한 이래, 石油政策은 모든 정치문제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의 하나가 되어 왔다. 당시 극적인 국유화조치를 발표한 직후 카르테나스 대통령은 국가의 큰 재산인 석유회사를 재건하자고 호소하였으며, 국민들은 「대중의 영웅」에 적극 호응하여 기르고 있는 닭이나 염소 또는 결혼반지까지 기꺼이 헌납하였다. 이 같은 카르테나스의 정신은 對外 및 경제정책의 주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거대국영석유사인 Pemex에 팽배해 있다.

페멕스는 멕시코石油의 대명사

여러모로 보아 Pemex는 하나의 회사라기보다 멕시코國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힘에 의존하는

오랜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노동운동이 있으며, 또한 美国에서 교육받은 두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Pemex를 이끌고 있다. 멕시코政府와 마찬가지로 Pemex도 北쪽에 위치한 강대국 美国이 멕시코의 천연자원인 石油를 고갈시키려 한다고 의심한다.

美国이 멕시코의 石油를 전략자원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720억배럴로 알려진 멕시코의 석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실제로는 2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멕시코는 제2의 中東이며, 석유매장량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버금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워싱턴 소재 美州開發銀行의 베르나르도 그로슬링 고문은 말한다.

멕시코人들은 짧은 採油역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매장량과 高價로 분류되는 그들의 石油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70년대 중반 멕시코를 産油国으로 등장시킨 호세 로페즈 포르티요 前대통령은 石油를 통한 멕시코의 지위상승을 꿈꾸었다. 당시 그는 『세계는 두가지 부류의 국가群으로 나눌 수 있다. 石油를 가진 者と 못가진 者가 그것인데, 우리는 石油를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호언하였다.

石油의 위력이 世界를 뒤흔들고 있을 때 강경한 석유정책을 주장하던 멕시코의 정치가들은 시장약세가 뚜렷한 후에도 自國의 영향력 축소와 앞에 닥친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였다. 한 예로 지난 여름 OPEC (石油輸出國機構) 총회가 공식價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OPEC의 실질적 리더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非회원국인 멕시코만이 現가격유지를 주장하였다.

油價引下에 대한 정책대립

멕시코內에서도 油價인하를 원하는 Pemex의 최고 경영진과 가격유지를 고집하는 政府와의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 세계석유시장은 비싼 멕시코産 原油를 외면하여 멕시코 정부는 지난 6~7월 동안 8억달러의 石油收入 감소를 가져왔다. 마침내 데라·마드리드 대통령도 Pemex에 동조하여 油價引下를 단행하였다. 국제석유시장에 비할 때, 멕시코의 인하폭이 작지만, 석유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Pemex와 자주 접하는 美国의 어느 유력회사 사장은 『그들은 油價인하를 비애국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공급과잉의 세계석유시장에서 石油를 팔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여름의 油價논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中央銀行과 財務省 등을 거쳐 25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Pemex의 마리오 라몬 베테타총재는 멕시코는 한가지 교훈을 배웠다고 말한다. 또한 멕시코는 시장잠식을 감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상황에 적응해 나갈 것이라 하며, 지난 6, 7월과 같은 상황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油價안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初에 열린 OPEC 회의결과 금년 12월 안으로 油價速落의 조짐이 뚜렷하여 그의 희망은 기대로서 끝날 공산이 크다. 타당성있게 거론되는 내년 여름의 低油價에 대해서 그는 『내년 여름 배럴당 20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그것은 油價의 점진적 하락이 아니라, 차라리 시장의 붕괴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멕시코의 경제는 전도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즉각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石油政策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産油의 역사가 짧은데에서 기인한다. 197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石油輸出國이 되었으며, 그나마 1981년에는 石油市場이 공급과잉으로 反轉되었으니 石油文化의 축적이 오랜 역사를 가진 他産油国에 비할 바가 못된다. 따라서 Sellers' market에서 팔기만 하면 되었던 그들의 석유정책은 미처 다른 代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멕시코의 언론과 일반대중들도 전문적인 석유정책에 관한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OPEC의 창설국인 베네수엘라가 언론을 통하여 격렬한 토론을 벌이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 베네수엘라, 英國 등 産油国들은 그들의 장래 석유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는 적정수준의 油價인하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石油의 代替에너지개발이 위축될 것이고, 향후 100여년을 採油할 수 있는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윤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

면 매장량이 매우 적은 알제리는 自國의 石油가 고갈될 때까지 석유값이 가능하면 많이 오르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모호한 愛國의 논리만 내세울 뿐 뚜렷이 나타난 공식견해가 없다. 石油는 傳家의 보물이니 험하게 쓰지 말고, 또한 美國의 수증으로 떨어지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전부이다. 멕시코의 對산유국경제협력관인 호르헤 에타르도 나바레테氏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石油에 관하여 집약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외국인들은 우리의 石油資源개발을 급속히 추진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태여 궁색하게 꾸려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石油가 目前의 收入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다음 세기까지 이어져야 한다.』

포르티오 前대통령시절에는 활발한 탐사로 매장량을 늘려 가는 것이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의 매장량만으로도 3백만b/d의 생산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끌고 있고, Pemex의 관리들도 향후 3년동안 30만b/d의 增産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멕시코의 해외석유판매조정관 아드리안 라후르氏에 의하면, Pemex는 石油輸出量을 생산량의 1/2 이하로 제한할 것이며, 對美輸出量도 전체 수출량의 1/2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멕시코의 對美石油輸出量은 75만b/d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최근 지난 여름의 판매량 감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구매자 확보차 유럽 및 日本을 방문한 바 있다. 멕시코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길은 판매전략을 다변화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對美수출제한은 민감한 문제

멕시코의 美國에 대한 石油輸出量 제한조치는 양국 사이에 가장 민감한 현안문제중의 하나이다. 비록 최단시일내에 멕시코政府는 美國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제한물량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지만, 兩國 어느 測도 국민감정을 우려하여 더 이상 문제삼기를 피하고 있다. 결국 멕시코政府의 선택의 幅은 석유판매를 늘리는 것과 外債償還거절로 좁혀지는데, 국민들은 後者를 지지할 것이다.

멕시코의 石油政策에 대한 의견은 대개 다음과 같다.

Pemex를 항상 비판해온 헤베르토 까스티요 좌익 멕시코노동당 당수는 『우리는 原油輸出을 중지하고 石油化學製品만을 수출해야 한다. 현재 석유수출액의 75%가 外債에 대한 이자로 대부분 美國銀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美國은 멕시코를 경제파탄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와 상반된 견해로 Pemex의 前任간부 디아즈 세라노氏는 美國에 對한 石油輸出제한은 결국 멕시코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 이웃이 가장 믿을만한 고객이기 때문에, 美國에 對한 수출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또한 그는 멕시코와 경쟁상대를 OPEC라 간주하고, 石油를 보다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한다.

아직 세력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부각되는 야당인 國民行動黨의 파블로 에밀리오 마데로 총재는 石油市場이 回生하려는 조짐이 있는 만큼 지금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300만b/d씩 수출을 계속하면 앞으로 9년 후에는 모든 外債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멕시코에 있어서 Pemex의 위치는 실로 막중하다. 지난 10여년동안 政府는 Pemex에 막대한 투자를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투자액은 석유자원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Pemex의 지질학자, 기술자 및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포르티오前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石油는 神의 축복이자 惡의 유혹』이다. Pemex내부와 주변에는 많은 부정축재자가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石油産業내부의 부패에 대한 평판은 지극히 나빠서 데 라 마드리드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베테타 Pemex총재는 Pemex를 「도덕 재무장」의 표본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우선 회계감사 및 모니터요원 등 5,000여명을 새로 보강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美國에서 교육받은 새로운 간부 직원들이 도착하자 Pemex内에서는 경험없는 非石油人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石油노동자연맹

베테타총재의 쇄신계획은 中南美의 노동조직중에서 가장 규모와 세력이 크기로 정평이 난 멕시코 共和國石油勞動者聯盟에 의하여 벽에 부딪혔다. 현재 Pemex의 對外國거래는 Pemex측이 맡고 있고, 내부운영, 예를 들어 시추, 탐사, 정비 등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同聯盟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 비공식적이지만 同연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조아킨 헤르난데즈 갈리시아로서 거의 神의인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

同연맹은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슈퍼마켓, 농장, 공장, 건설회사 등 외에도 합법적으로 Pemex의 모든 도급액의 2%를 수수료로 받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까지 만해도 政府는 노동협약에 의거하여 Pemex도급액의 50%를 同연맹에 할당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同연맹의 지도부는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받고 Pemex에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 라 마드리드대통령과 베테타총재는 처음에 헤르난데즈의 세력기반을 약화시키려고 연맹내의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려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16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同연맹은 군대보다 두 배나 크다고 라미레즈 데 라 오 고문은 말한다. 연맹을 위협하는 유일한 수단은 쿠데타 뿐이라며 군대를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라고 그는 덧붙인다.

다른 관측통에 의하면 政府는 팔레비王政을 무너뜨린 이란의 石油노동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멕시코에서 이와 비슷한 사태가 재현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연맹을 무한정

몰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社會平和의 유지라는 Pemex의 신조를 내세우고 베테타총재는 적어도 두달에 한번 이상 헤르난데즈를 만나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共存의 길을 모색

보다 중요한 것은 Pemex의 간부들이 사회적, 경제적 혼란보다는 차라리 同연맹의 瀆職행위를 용인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들의 계산은 연맹의 비리행위를 일소한다 하더라도 Pemex가 얻는 것은 생산비에서 15%가 절감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정도를 위해서 연맹과 싸움을 벌일 가치가 없다고 한다.

Pemex는 아래에서는 연맹으로부터 위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의 공세를 당하고 있다. 政府는 막대한 外債의 상당부분의 담보로써 Pemex의 石油를 사용하였을 뿐아니라 Pemex자신도 76년부터 81년 사이에 정부를 위하여 약 220억달러를 빌어 왔다. 그중 Pemex가 사용한 액수는 50억달러이며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가져갔다고 Pemex의 간부는 강조한다.

지금 또다시 Pemex의 石油는 外債支拂에 쓰이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Pemex의 간부들에 의하면 同社가 작년에 벌어들인 액수는 160억달러이며, 그중 40억 달러는 운영 및 탐사비용으로 유보하고 나머지는 債務상환에 충당되었다고 밝힌다.

『우리는 멕시코에서 유일하게 살찐 젖소이며, 정부는 그 우유를 짜고 있다』고 Pemex의 간부는 말한다. *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 10. 10〉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